제2025-57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초등 학생생활부
전화번호: TEL: 021) 6493-8568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华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학교생활 안전 교육 협조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부주의와 장난으로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아래의 사항을 자녀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안전 수칙>

· 마스크를 착용한다.
· 쉬는 시간에 손을 자주 씻는다.

<교실>

· 의자를 뒤로 젖히며 흔들거나 옆 사람의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뾰족한 물건을 들고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하지 않는다.
· 창턱에 걸터앉거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장난치지 않는다.
·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창가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 칼, 자, 연필, 가위 등 학용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 책상이나 걸상 위로 걸어 다니지 않는다.
· 교실에서는 씨름 등 몸으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나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복도와 계단>

· 복도에서 절대 뛰지 않고, 친구와 장난치지 않는다.
· 뛰어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걸지 않는다.
· 신발의 뒤꿈치를 끌거나 꺾어 신지 않는다.
· 운동화 끈이 풀렸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풀리지 않도록 꼭 맨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우측통행을 하며 장난하지 않는다.
· 앞을 똑바로 보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내린다.
·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지 않는다.
· 계단 난간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여럿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내려간다.

<운동장/운동기구>

.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 운동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 물기가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경기를 할 때에는 미끄러우므로 주의한다.
· 야구공 등 딱딱한 물체를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도록 한다.
. 놀이 기구는 바르게 이용하며 장난을 치지 않는다.
· 놀이기구에 매달린 친구를 뒤에서 밀어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그네를 탈 때에는 주변 사람이 앞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탄다. 그네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는 안전하게 그네 밖 옆에서 기다리도록 한다. 또 그네 타는 사람을 뒤에서 너무 세게 밀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아놓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타지 않는다.
· 놀이기구가 여름철에 뜨거워져 있거나 겨울철 얼었을 때에는 특히 조심한다.

<화장실>

· 화장실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하지 않는다. 변기나 세면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 화장실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특히 화장실 청소 세제는 유독하므로 절대 손대지 않도록 한다.
·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차례를 지키도록 하며, 큰 소리로 잡담하지 않도록 한다.
·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2명 이상이 함께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 화장실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알린다.
· 화장실 온수기는 찬물부터 틀고 온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기타 생활 안전>

· 칼, 라이터, 비비탄 총 등 위험한 물건이나 장난감을 학교에 절대 가지고 오지 않는다.
· 난간 등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을 지킨다.
· 차량이 있을 때 공놀이를 하지 않으며, 정해진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한다.
· 좁고 위험한 길로 다니지 않는다.
·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우산으로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밝은 옷을 입는다.
· 휴대폰을 보며 걷지 않는다.

※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생활 지도는 매일 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자녀와 더불어 꼭 내용을 읽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4. 03.

상 해 한 국 학 교 장